모든 생활이 공부니까 열심히들 해 보세요!

☞25면에서 계속

불성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 구성된 하나의 바로 불성이니까, 불성이 중심을 꿰어서 바퀴가 돌아가듯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싹은 뿌리를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너만이, 마음이 의욕이 생기고 편안케 할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면 차차로 살아나가는 것도 편리해지고 또 가정도 편리해져요, 차차 말이에요.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연 중에 그, 부처님 일체 마음이 바로 비 내리듯 해서 나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고, 식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야. 그게 자비의 꽃과 같은 꽃잎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살기도 여유가 있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니 사람의 혈색이 좋아지고 사람이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 선장한테 맡기란 얘기입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아까 잠 얘기 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졸리면 자고 또 졸리지 않으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자체가 그냥, 전체 진리에 관한 건이 몽땅 다 그 자리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들도 하지만 지금 속가에서 살면서 잠을 너무 자도 안 되고 너무 안 자도 또 안 돼. 너무 안 자도 몸이 망가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아주 적중하게 알맞게 자고 알맞게 깨어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다 지내봐요. 그전에 세시 반에 일어나서 도량석 하고 종송 하고 예불 올리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 또 쓸고.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와서 목탁을 들 수가 없이 저거 했어도 치면서 손이 얼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없어, 고맙고. 그 쇳송소리가 어디만큼 가느냐 하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그 소리가 다 돌고 남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이야. 그 쇳송하다가도 그 쇳송 하는 소리 그 자체가 그냥 전부 내 눈물이었어. 그랬듯이 하여튼 모든 생활이 공부니까 열심히들 해봐.

질문자3(남): 예. 알겠습니다.

스님: 자는 것도 우리가 하는데 세시에 일어나면 줄창 그 시간이면 일어나야겠으니까, 일어나야겠으니까 아주 못을 박은 거 아냐. 그러니깐 저절로 그 시간이 되면 깨져, 그냥 깨져요! 지금도 그 시간이면 깨진다고. 지금 내가 안 하고 모두 이 스님네들이 하는데도 내가 깨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딱 한 번 '이 시간은 깨져야 돼!' 하면, 그러니까 아홉시에 자걸랑은 여섯시에 일어나기로 하든지 다섯시에 일어나도 되겠지. 다섯시에 일어나도 능준하지. 하니까 열시에 자면 또 한 시간 늦춰서 여섯시에 일어나든가. 그렇게 적중하게 그저 사람이 사는 동안 여섯 시간 반이나 그렇게 자면 족하지 않아? 난 족하다고 봐. 일곱 시간, 여섯 시간 뭐 여섯 시간 반.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을 향해서 얘기야. 젊은 사람들은 여섯 시간이면 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이러란 말입니다. 잠자는 것도 좌선이요 서 있는 것도 좌선이요 일하는 것도 좌선이요 누운 것도 좌선이요 앉아있는 것도 좌선이야. 이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을 한다고 해서 좌선이 아니거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좌선이지.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구애받지 말고…. 잠이 안 온대? 잠이 많이 자진대? 허허.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다면 그냥 뭉청뭉청 무너져요!

질문자3(남): 잠이 많이, 아니 잠이 많이….

스님: 잠을 너무 지나치게 잔다 이거죠?

질문자3(남): 그게 아니라 수련을 하는데 잠의 유혹이 너무 이렇게 심해서요.

스님: 오, 수련하는데, 수련하는데 졸리면 그냥 자는 것도 수련이야. (대중 웃음) 이 공부가 왜 편안한 줄 알아? 졸려서 자는 것도 수련이기 때문에 그냥 자는 거야. 편안하게 좀 배우라고. 그래서 몸을 그냥 움치고 그냥 우그려뜨려 앉혀놓고선 애쓰게 만드는 게 그게 수련이 아냐. 자유스럽게 몸을 두면서 이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게 하는 거야. 어때? 모두 무슨 호흡 한다고들 해가지고 병이 들어선 나한테 와서 그걸 고쳐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밖엔 할 수가 없어서 관하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더러 나았지.

그런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고 나올 줄 알아야지. 문으로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들여보내기만 하고 빼낼 줄 모르면 그건 병들지, 그냥. 스님네들이 예전에 혈관조절 하기 위해서 단전호흡이 필요했던 거야. 앉아서 정진하니까 그 피 순환을 시키느라고. 그런데 그것을 넣었다가 확 펴서 온기를 다 빼야 될 텐데 넣기만 하고 그냥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 정수리로 뜨거운 김이 막 나가고 귀로 빠지고 그냥 이렇게 떨리고 그냥, 기를 빼지 못해서 모두 병신이 돼버리지. 항상 먹는 그릇도 물을 떴으면 먹고, 빈 컵이 나가서 다시 물을 먹고 싶으면 떠야 이게 정상인 거라. 그런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붓기만 하고 이걸 먹을 줄도 모르고 남을 줄 줄도 모른다면 이 물은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졸리면 자는 것도 좌선이기 때문에 그냥 자라고 그래요.

질문자3(남): 예, 알겠습니다.

스님: 구애받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자게 하는 것도 네놈 안 자게 하는 놈도 네놈, 먹게 하는 놈도 네놈 못 먹게 하는 것도 네놈, 살게 하는 것도 네놈 못살게 된 것도 네놈. 그러니깐 잘 생각해서 그냥 맑은 물로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지요? (대중 웃음) 그거 자기 뿌리의 불성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봐요.

질문자3(남): 네. 알겠습니다.

스님: 난, 고깃덩어리인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기만 하고 믿진 말아요. 믿는 건 네 주인공 네 바로 불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질문자4(여): 저는 이절 저절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옴마니반메훔'이 잡귀를 떨친다 해서 우리 집의 영가님들이 다 천도가 안된 것 같아서 저는 '옴마니반메훔'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도 많이 좋아지고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우리 영가님들을 다 천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도도 몰랐습니다. 저는 불도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가님들 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님의 테이프 안에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감이 굉장히 돼서 그 다음날 떠나서 L.A.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스님을 뵙고 제가 감히 우리 아들을 스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대중 웃음) 전 여기 꿴 다음에 한마음공부를 그때서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 가지고 남들은 다 스님 뵙고 이렇게 좋은 비디오가 나오고 테이프가 나왔는데 나는 스님 한 번 친견 못하고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이고 나도 부럽다, 어서 서울 가서 스님을 뵈련다 하고 제가 그 다음날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을 제가 그때 뵐 때 이런 말은 못하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은 제가 못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아들 효자예요. 우리 아들 너무 좋은 아들이에요. 정말 착하고 불심이 너무 좋은 아인데 제가 몰랐어요." 우리집에는 제가 정말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저한테 달렸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용인에 14만평짜리 산소에 조상님이 몇백 년 묻혀 계신데 그 산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으니까는 스님 책을 보니까 빚 갚아준 사람도 다 있고, 그 책에, 그래서 나도 가서 우리 스님한테 조르련다 하고 그러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뵙고 그 말씀을 하니까 우리 스님이 "관하라!"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지 스님한테 와갖고 또 제가 욕심에 스님을 뵙고 싶은 겁니다. 한 번 더 뵙고 그 다음에 내가 한마음 공부를 하지 그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지 스님은 스님한테 가지 않아도 네가 법당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때는 법당에 올라가서 들었는데, 그때 법문을 하시는 스님이 너무도 좋았어요. L.A.에서는 이런 법문을 듣지를 못했는데 너무도 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너지게 되면 환하게 문 아닌 문이 보여요!

스님을 뵈었을 때 그 산 걱정을 했더니 "관하라." 그랬는데 스님 말씀도 제가 알아들었어요. 나를 왜 그날 스님 안 뵙게 해주셨지? 오,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를 스님께 또 못 가게 하고, 스님 괴롭히니까 못 가게 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저께요, 저희 산이 풀렸어요. 저희 산에 빚이 다 갚아졌어요. 어떤 분이 나와 갖고 그 빚이 3억 5000만원인데 그 빚을 자기가 먼저 갚아주고 너희가 걱정 없게 해놓고 이 산은 나중에 팔리면 그때 이득을 갈라주마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 산을 팔겠다고 얼마나 친구들이나 모두 부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산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모신 산입니다."라고 막 그러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또 될 것도 같고 그랬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은 그런 거야.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그 산 사줄 사람 없어.' 그랬는데 저도 마음 가운데 한마음 주인공께 이 산을 부탁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효심이 좋으니까 또 우리 영감도 효심이 좋은 분이니까 조상님이 계시다면 이 산이 그렇게 넘어가진 않겠지. 그런 지 4년짼데 그 산이 해결이 돼서 '오, 됐다! 나도 스님 뵙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가야지. 주지 스님한테 이 얘기 하면 이번엔 인사 가게 해주시겠지.' 해서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하러 온 거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잠을 많이 자요. 우리 아들 저기 앉아 있어요.

스님: 말씀 못하시고 가시면 그냥, 그냥 부글부글 끓을 테니까 잘하셨어요. (대중 웃음)

질문자4(여): 스님, 우리 아들 저기 앉아 있는데 스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스님: 이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진언을 염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쫓는 게 아니에요. 아, 전부 귀신 아닌 게 없는데, 산 귀신 죽은 귀신 그냥 전부 있는데 그걸 다 쫓고 나면 자기까지도 쫓아지게요? 하하. 그러니깐요, 귀신이 따로 없고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귀신도 얼마나 좋은 귀신들이 많습니까? 하하하. 아, 저도 귀신인데요, 뭐. 하하. 예. 하여튼, 이제 요다음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 산에 묻힌 조상들을 파내서 그 자리에서 태워 탑에다가 모시도록 하세요.

질문자4(여): 스님, 탑이 어디 있죠?

스님: 저, 금왕에 있어요.

질문자4(여): 예. 오늘 제가 이 질문 필요한 거….

스님: 그렇게 하고 그 땅은 팔게 되면요, 아드님한테 소중하게 쓰이게 돼요.

질문자4(여): 아들한테 소중하게 쓰이죠?

스님: 예.

질문자4(여):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마음 저도 좀….

스님: 관하면서 뭐든지 하게 하세요.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사회자: 질문 끝났습니다.

스님: 끝나셨습니까? 뭐, 끝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자꾸 그냥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염불을 하는 걸 들어도 법문이고, 노래를 하는 걸 들어도 바로 법문이고 여기는 선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래도 잘하시고 염불도 따라서 잘하시고 또 관하는 것도 집중해서 잘하시고 그저 여러 모로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억지로 잡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닥친 거 마다하지도 말고 그냥 거기다 맡기고 가시면 스스로서 되게끔 돼 있어요.

※위 법문은 1997년 3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예경:각청편
- 제 2권:천도:시식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

주역원전 강좌 개강

계절의 변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만물이 나고 죽는 것 등에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다. 周易은 바로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주역의 대가 **大山 김석진** 선생님의 **'쉽고 간단한' 주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강의를 한다.

「주역」 매주(수) 오전 11시 ~ 1시
哲山 최정준 선생, 3월 개강

그 외, 대산 선생님의 「시경(화요일 오후)」강의를 비롯해, 「노자의 도덕경(3월 개강, 월요일 오전)」, 「이천역전(4월 개강, 목요일 오전)」, 「춘추(월요일 오후)」, 「장자(목요일 오후)」가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 02)2237-9137, 2237-8970
서울 종로구 승인2동 261번지 화성빌딩
2층(1호선 동묘역 3번 출구)
www.DONGBANG.or.kr